

**안전·안심
민생 구청장**



**1 진짜 일꾼
진교훈**

배포일	2023. 10. 06.(금)	담당	김연주 (010-2027-7211)
-----	------------------	----	---------------------

진교훈, 돌봄 종사자 만나 “복지는 곧 사회 안정의 인프라” 재가요양시설·어린이집 간담회 참석... 복지위·예결위원장 “전폭 지원”

‘안전·안심·민생구청장’ 진교훈 더불어민주당 강서구청장 후보가 6일 사무실에서 열린 ‘강서 재가요양시설·어린이집 간담회’에 참석해서 “복지는 곧 우리 사회 안정의 인프라”라며 “더 귀를 기울이고 할 수 있는 일을 정확히 살피겠다”고 밝혔다.

진 후보는 “복지 사각지대에 놓은 어르신을 보살피고, 아이들을 돌보는 일은 국가와 지자체의 일인데 대신하고 계신 관계자분들 만나게 되어 반갑다”고 말했다.

간담회에 참석한 돌봄 종사자들은 △재가요양시설장 인건비 별도 편성 △재가요양시설 평가제도 개선 △종사자 수급 어려움에 따른 인건비 추가 지원 △민간 및 가정어린이집 보육료 인상 △조리사 인건비 및 간식비 별도 지급 △야간보육, 휴일보육 등 추가 지원 등 다양한 문제에 대한 해결을 요청했다.

민주당이 개최한 이번 간담회에는 유동수 원내수석부대표, 서삼석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, 신동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, 고영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간사, 한정애·진성준·강선우·송재호 국회의원 등 20여명이 참석했다.

“민생이 최우선순위, 관련 예산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”

신동근 국회 보건복지위 위원장은 “저출산 고령화 현상이 세계 그 어느 나라보다 빠르게 진행되며 인구소멸의 단계에 접어든 상황”이라고 우려를 표한 뒤 “적정인

력의 배치, 인건비 보장, 처우개선, 복지시설 운영 규제 등 개선 필요성에 대해 입법과 정책으로 뒷받침하겠다”고 답했다.

서삼석 국회 예결위원장은 “오늘 제안들이 실현될 수 있도록 예산을 책임지겠다”고 밝혔고, 유동수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“비단 강서뿐만 아니라, 전국 돌봄 종사자들에게 해당되는 이야기”라며 “당의 정책으로 최대한 반영하겠다”고 답했다.

한정애 의원은 “법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법으로 바꾸고, 집행과정에서는 결국 예산으로 해결해야 한다”며 “예를 들어 간식비의 경우, 정부는 늘 보육료에 포함돼있다는 식인데 아예 분리해달라고 명료하게 요구해야 할 것”이라고 밝혔다.

진성준 의원은 “우리 강서구 세입예산이 1조2000억원 수준으로 증가했는데,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가 없다는 점에서 답답하다”며 “구 예산 전반에 대한 리모델링을 통해 실제 주민들에게 필요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밀도 있게 협의해나가겠다”는 약속을 전했다.

고영인 국회 보건복지위 간사는 “장기요양시설의 경우 시설장들이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경영상 적자를 보는 상황을 잘 알고 있다”며, “어린이집 역시 보육료 인상에 대한 현안 요구 잘 알고 있어, 보건복지위원회뿐만 아니라 당 역시 공감하고 있는 부분인 만큼 증액을 위해 당 차원의 노력을 약속드린다”고 말했다. /끝

[붙임] 1. 간담회 사진

2. 간담회 사진

[붙임] 1. 간담회 사진



[붙임] 2. 간담회 사진

